

SUNBO FAMILY

SUNBO Ind Co., 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vol.59

2008.12.15

since 1986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선보 하이텍 송년회

2008. 11. 29일(토)

장소 : 부산유스호텔 아르피나

목포공장 선보가족

“저희부산 나들이 왔어요”

지난 11월 29일 목포공장 임직원 약 60여명이 연말을 맞아 연말송년회 겸 부산공장 견학 등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본사에서 회사 소개 및 공장 견학을 시작으로 2공장, 구평공장, 영도공장의 견학을 했으며, 영도공장으로 가는 길에 송도 바닷가와 절영계곡 등 멋진 절경을 함께 둘러보았다. 목포공장 식구들은 영도공장 공장견학 이후 해운대에 위치한 숙소 '아르피나'로 이동하여 관광대교 관광 후 '아르피나 뷔페'에서 송년회 행사를 하였다.

그 다음날인 30일에는 대표이사와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최금식 대표이사는 “목포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어 늘 그립고 언젠가는 만나고 싶었다.”며 “오늘 이후 더욱 화합된 모습으로 목표를 달성하자.”라고 말했다.

그 후 해운대 누리마루와 아쿠아리움 관람이 있었는데 아쿠아리움을 본 목포 직원들은 연신 사진기를 꺼내들며 “정말 멋있다.”, “가족들과 다시 오고 싶다.” 등의 감탄사를 연발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후 한 직원은 “말로만 들던 본사 등 여러 공장



등을 직접 눈으로 둘러보니 지금보다 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으며, 회사 전반적으로 정리된 작업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쉬움과 여로를 뒤로 한 채 목포로 돌아가는 목포 직원들은 이어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부산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로 마음만은 푸근했던 것 같다. 많은 도움을 준 부산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입주 투자유치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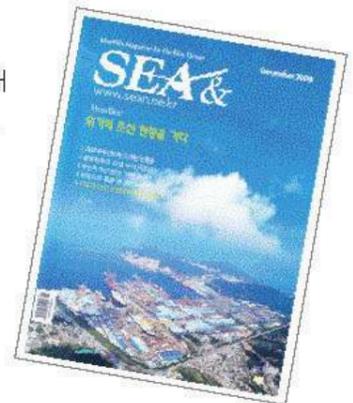


우리 회사는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 부지 입주가 확정되어 현대중공업 및 핵심협력업체 13개 기업과 군산시 주관 하에 군산시청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서 문동신 군산시장과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어떠한 불편이나 애로사항 없이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 회사는 이로서 2009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와 동북아 전진기지 확보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해양관련 월간 매거진 “SEA&” 12월호에 소개 돼..

우리 회사가 해양관련 월간 매거진 “SEA&” 12월 호에 실렸다. ‘위기의 조선 현장을 가다’ 헤드라인 아래 원자재 폭등, 경기 침체로 어려운 조선 현장을 취재했다. “SEA&” 12월 호에는 최금식 대표이사의 인터뷰 기사를 비롯해 조선해양 모듈·유니트 및 블록 분야 선도기업으로 꾸준한 설비확장과 기술개발, 우수한 인력 등의 특징이 소개되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으로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회사소식

독서 통신 교육 책도 읽고 사내 도서관도 만들고 ~

직급별 독서통신 교육과정 완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3개월 과정의 독서통신교육이 10월 마지막 리포트 제출로 전체일정이 완료됐다. 우리 회사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번 교육에 관리직 147명이 참여해 138명이 수료하였다. 이번 독서통신교육을 통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평생 자기주도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급변하는 환경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독서통신 교육은 리더십, 자기개발 등 관련 책을 1달에 1권씩 우편으로 받아서 읽고 온라인으로 리

포트를 제출하면 전문 심사위원들이 채점하고,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완료 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92%가 교육내용에 만족하고 자기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업기획팀 이기환 사원은 신입사원으로 평소 자기개발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있던 분야의 책을 읽고, 모아서 사내도서관을 만들어 다양한 책을 자율적으로 빌려볼 수 있어 좋았다고 평하였다. 우리 회사는 내년에도 2회에 걸쳐 독서통신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회사소식

사내 교육 안전교육 시청각 실시!!



지난달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진행되어 오던 안전교육 중 일부가 시청각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현장에서 받는 안전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청각교육이 첨가된 것이다. 현장에서 받는 안전교육을 두 번 실시한 후 한 번은 시청각 교육을 하는 형식으로 안전교육의 방식이 보완되었다.

안전교육 관계자는 "현장에서 받는 교육 또한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직접 피부로 느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안전교육이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실행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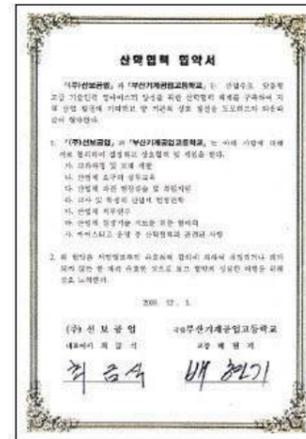
그러나 시청각 교육은 현재 본사와 제 3공장을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실시되고 있는 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안전교육 관계자는 "공간 확보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직원들이 이해해 주고, 알찬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청각 교육을 보고 난 직원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가장이 안전사고로 다쳐 가정이 많이 힘들어하는 장면을 실제 영상으로 보고나니, 막연히 안전교육을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직접 피부로 와 닿는다. 알고 있던 것이었지만 영상을 보고난 후에 다시 한 번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시청각 교육의 효과에 대해 말했다. 현장 안전교육과 더불어 시청각 교육이 많은 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회사소식

산학협력 협약

우리 회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영 마이스트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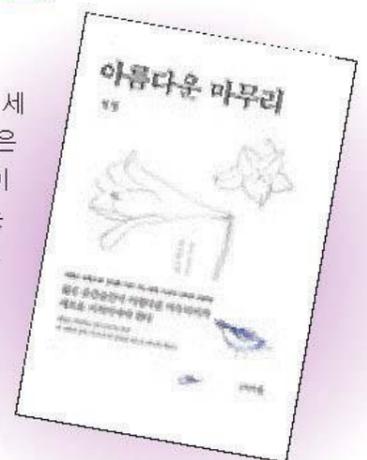
우리 회사는 2008년 12월 1일 부산기계공고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 기술인력 영마이스터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학협력 협약을 하였다. 우리 회사는 협의사항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산업체 요구의 실무교육,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교사 및 학생의 산업체 현장견학, 산업체 직무 연수, 산업체 현장기술 지도를 위한 협의회 그리고, 마이스터고 운영 중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마이스터는 독일의 "기술장인"이라는 뜻에서 유래 되었으며 독일의 기술이 현재 세계최고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크게 작용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한국 기계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영 마이스터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홍렬 상무의

이 한편의 책 읽고 또 읽어도 좋다. 법정 스님의 새 산문집!

몇 번을 읽어도 항상 새로운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법정 스님의 산문집. 1년 전, 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처 입은 이에겐 따뜻한 위안을,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이에겐 당당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귀한 책. 『홀로 사는 즐거움』 이후 4년 6개월 만에 펴내는 이번 산문집에는 침묵과 고요, 간소한 삶과 선택한 가난, 그리고 병상에서 건져 올린 가치 있는 삶의 기술에 대한 글들이 담겨 있다. 열음을 깨어 차를 달이고, 채소 모종을 사다 심고 가꾸는 스님의 산중 삶부터 제철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 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좋은 책과 독서의 의미, 그리고 월든 호숫가로 소로우의 삶을 찾아간 이야기까지. 자연주의 사상가이자 단순하고 청빈한 삶의 실천가인 법정 스님은 출가 이후 생의

대부분을 산중 오두막에서 홀로 수행하며 지냈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라곤 한 달에 한 번 쓰는 짧은 산문 한 편, 그 글은 세상과 스님을 이어 주는 끈이었다. 그 글에서 어떤 이는 위로를 받고, 어떤 이는 홀로 섰으며, 어떤 이는 용서할 힘을 얻었다. 어떤 이는 그 말씀을 화두로 삼았고, 어떤 이는 상처를 씻었다. 현대인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을 지닌 법정 스님의 글에는 한 그루 청정한 나무와도 같은 기백과 간소한 삶과 침묵에서 우려나온 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배어 있다.



추천여행지

해운대



화려함, 소박함이 어우러진 추억의 바다 '해운대'

자갈치시장, 광안대교, 남포동 PIFF거리 등 부산 곳곳에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고, 다양하다. 많은 장소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해운대다.

이제는 부산의 명소라는 말이 식상할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계절별문, 남녀노소불문하고 끊임없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여름이면 물 반, 사람 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고, 가을이면 아시아 영화 대표 행사인 부산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유명인사와 영화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해운대를 찾는다. 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와 부드러운 모래알이 어우러진 해변은 더 이상의 수식어가 부끄러울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바다의 모습과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만큼이나 유명한 또 다른 한 곳은 바로 '아쿠아리움'이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로 전시체험관 등을 운

영하고 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환영을 받고 있다. 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는 조선포탈의 뒷길을 따라 걸다보면 APEC 세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장소인 '누리마루'가 있다. 누리마루가 동백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그 절경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볼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즐거운 광경 외에도 누리마루의 전시관은 개방되어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동백섬에서 즐기는 마천루의 야경은 광안대교와 어우러져 흡사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온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해수욕장과 '아쿠아리움'에서 바다를 눈앞에서 보고, 산의 중턱에 해당하는 높이인 누리마루에서 바다를 보았다면, 이제는 산의 정상에서 바다를 내려다 볼 차례다.

그곳은 해운대 달맞이길이다. 해운대에서 송정방향으로 올라가다보면 위치한 달맞이길은 낮에도 절경을 자랑하지만 이름만큼 일몰 때나 특히 밤에 야경으로 본다면 두 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은은한 조명에 비춰진 바다는 활기차고 힘 있는 낮의 모습과는 달라 고요하고 차분한 인상을 준다.

달맞이 길을 눈으로 감상했다면, 이제는 입으로 음식을 음미할 차례. 달맞이길 근처에는 장어와 대구탕 등 각종 해산물로 만든 푸근한 식단이 많이 있으니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해수욕장도 좋지만 해수욕장이나 볼만한 곳이 많은 해운대.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이유는 언젠가 변함없는 모습을 갖고 있으며 보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협력업체 탐방



틀을 깨는 순간, 화하고 성장한다 화성BNP

모든 일에는 정해진 틀도, 틀도 셀 수 없이 존재한다. 고정관념, 선입견부터 시작되는 인식의 변화는 그만큼 깨기 힘든 것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틀 혹은 틀을 깨고 그것을 발전·계승시킨다면 또 다른 길의 시작이다. 관리자로서 혹은 일반 사원으로서 할 일을 구분한다거나 오픈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최고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식의 전환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화성BNP를 만나보자. 혼전 속 해결책은 오로지 품질!!

화성BNP는 조선기자재 및 철 구조물 표면처리 및 도장 전문 업체이다. 2005년 10월을 기점으로 회사가 발돋움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력만큼은 다른 회사 못지 않은 기세다. 화성BNP 윤수환 대표이사는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금은 자타공인 품질 만큼은 자부심 있는 회사로 거듭났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품질에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

윤수환 대표이사는 "외부적인 품질 검사 외 내부적인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원자재 폭등과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이전보다는 어려운 조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수한 품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부적인 품질 검사를 꼼꼼히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에서 신뢰를 얻는 회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많

은 부분들이 버겁고 다소 힘들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 뿌듯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우수한 품질을 갖는 것 외에도 원가절감이나 처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식의 전환, 변화의 키워드 윤수환 대표이사는 무엇보다도 근무할 때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관리자든, 현장 직원이든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있던 불필요한 습관은 벗어던지고 늘 생각했던 것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회사가 영업력이 뛰어나다고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품질로 고객들이 먼저 찾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까지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강조한 인식의 전환으로 화성BNP는 변화,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성장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목표를 향해서 달릴 때는 자신의 회사 외에도 그 옆의 동반자들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는 "여러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 그러한 선배와 서로 실망하지 않는 품질로 꾸준한 관계로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의 말처럼 선배와 화성BNP가 힘을 모아 지금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날을 기대해 본다.



생생현장의 소리

대경산업 | 정맹호 직장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회사의 시작과 함께 유니텍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대경산업 정맹호 직장 인터뷰를 하며 그에게 질문을 했다. 일을 하면서 특별히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냐고, 그의 대답은 간단하다. "힘든 부분은 있지만, 힘든 부분이 없다". 무언가 애매하면서도 그의 표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왜 일까? 그는 덧붙인다. "몸이야 어떤 일을 해도 이 만큼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특별히 힘들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맞추느라 바쁠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나한테 오기 까지 여러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크게 힘들지도 않다"라고 소탈하게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생각난듯 말한다. "힘든 것이 없는데, 또 힘든 것이 있다면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아픈데도 일을 해야만 할 때 그 때가 마음이 아프다. 나도 같은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고,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쉬게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아프다."라고..

정맹호 직장은 6년이 넘는 시간동안 물 흐르듯 일을 했지만 신념 또한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제품을 생산해낼 때 그 제품이 후에 자신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 구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제품을 만드는 데 임하는 것이다. 그는 "그저 물건을 만들어 기간 내 납품하기에만 급급해 한다면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만들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번 인터뷰가 현장혁신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FPSO 용접사 시험 부스를 제작하는 데 참여한 이유로 진행되었는데, 현장혁신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이미 우수사례를 넘어섰다. "이제 실질적인 현장혁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미세한 부분을 바꿔나가는 동시에 아이템은 있는데 구체적인 아이템이 없었던 관계로 없어졌던, 혹은 비용이 많이 들어 실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회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큰 발전을 이뤄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대충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특 내 던진 말 속에는 그가 얼마나 회사를 생각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곳곳하게 그 모습,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그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2009년 전사 경영목표



관 점	전사 KPI	목 표
재 무	매출달성율 (기존사업)	2,000억원
	(신규사업)	1,900억원
	수주달성율	100억원
	원가절감금액	2,400억원
고 객	검사합격율	100%
	제품완성도	100%
	고객불만처리비용	전년대비 70% 감소
	실패인건비용	전년대비 70% 감소
프로세스	생산성 향상율	20% 향상
	생산 LEAD TIME 감소율	20% 감소
	EVENT 준수율	100%
	IT 신규 개발율	100%
학습성장	인재육성율	100%
	연구개발건수	5 건
	혁신과제 추진율	100%
	조직몰입도	100%
	안전재해율	무재해

축하합니다!

- 본사생일**
구매 황지석(12/24)
최동배(12/26)
- 본사설계**
최순찬(12/8)
박이록(12/10)
신인호(12/27)
- 품질경영**
박경렬(12/10)
박용갑(12/20)
- 다대1공장**
김기주(12/11)
명철환(12/15)
조수희(12/15)
현정현(12/26)
김복자(12/27)
강현욱(12/27)
- 다대2공장**
김용호(12/22)
신동호(12/22)
- 다대3공장**
임혁빈(12/9)
윤준영(12/31)
- 본사 입사기념일**
구매 김동관(07/12/1)
- 품질경영**
박경렬(07/12/1)
- 사업기획**
이기환(07/12/1)
- 기술영업**
문해기(07/12/3)
- 설계2팀**
장철호(07/12/1)
- 다대1공장**
최근돌(01/12/27)
안종록(01/12/27)
박영호(01/12/27)
조영록(01/12/27)
김오석(03/12/16)
백성복(07/12/1)
김태식(07/12/1)
최우태(07/12/7)
- 다대2공장**
장상권(03/12/26)
이덕수(07/12/3)

틀린그림찾기

5개



SUNBO FAMILY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덕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
권을 보내드립니다.

